(749)

조 선

주체107 (2018) 12

차 례

표지: 조선의 기상을 상징하는 천리마동상　　사진 김혁철

화보 《조선》은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로 발행

조선과 꾸바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힘있게 과시한 감격적인 상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를 영접하시였다. 주체107(2018)년 11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가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조선을 방문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4일 리설주녀사와 함께 평양국제비행장에 나오시여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를 영접하시였다.

오후 1시,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가 탄 비행기가 평양국제비행장에 착륙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머나먼 대륙과 대양을 넘어 조선을 방문하는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를 열렬히 환영하시면서 굳은 악수를 나누시고 뜨겁게 포옹하시였다.

환영의식이 있은 다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함께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의 앞을 지나며 답례를 보내였다.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와 리스 꾸에스따 뻬라싸녀사를 숙소인 백화원영빈관까지 직접 안내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숙소에서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내외분과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담소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4일 오후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와 회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리설주녀사께서는 백화원영빈관 회담실앞에서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와 리스 꾸에스따 뻬라싸녀사와 따뜻한 분위기속에 만나시여 두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누신 후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이어 **김정은**동지와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사이의 단독회담이 진행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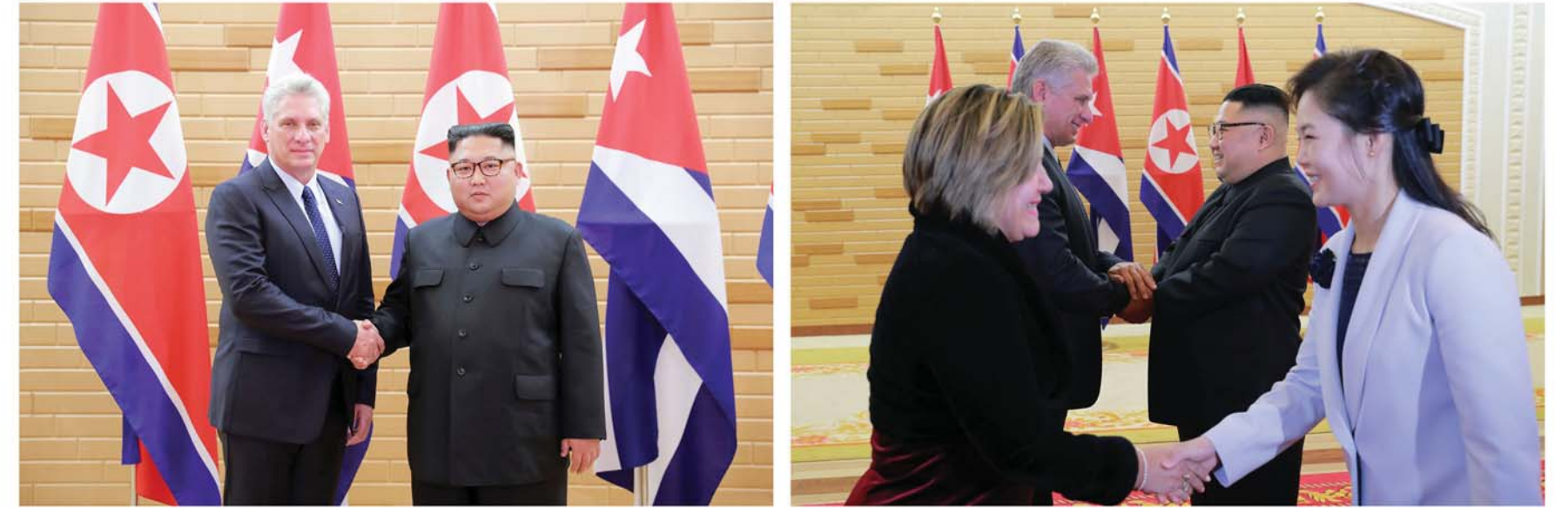
회담은 시종 동지적이며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이날 오후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의 조선방문을 환영하는 중요예술단체들의 합동공연이 진행되였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와 리스 꾸에스따 뻬라싸녀사와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은 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으며 **김일성**종합대학과 만경대혁명학원을 참관하였다.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와 리스 꾸에스따 뻬라싸녀사는 이날 만수대창작사를 참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내외분과 동행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5일 오후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와 회담하시였다. 주체107(2018)년 11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는 조선과 꾸바사이의 전투적우의와 친선단결을 과시하는 예술공연 관람석에 나오시여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주체107(2018)년 11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을 방문한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를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시였다.

주체107(2018)년 11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 초청하시여 또다시 뜨거운 상봉을 하시고 따뜻한 담화와 만찬을 함께 하시였다.

주체107(2018)년 11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내외분과 함께 만수대창작사를 참관하시였다. 주체107(2018)년 11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내외분과 함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하시였다. 주체107(2018)년 11월

위원장 겸 내각수상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 초청하시여 또다시 뜨거운 상봉을 하시고 따뜻한 담화와 만찬을 함께 하시였다.

김정은동지와 리설주녀사께서는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 리스 꾸에스따 뻬라싸녀사와 한가정처럼 단란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나누시며 친교를 두터이 하시였다

두 지도자내외분들께서는 한가정처럼 모여앉은 만찬장에서 서로의 가족들에 대한 소개로부터 두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풍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화제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와 함께 이날 저녁 5월1일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하시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자랑찬 발전면모와 인류자주위업의 광명한 미래를 환희로운 예술의 세계로 보여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관람자들의 대절찬을 받았다.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는 방문일정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11월 6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리설주녀사와 함께 평양국제비행장에 나오시여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와 리스 꾸에스따 뻬라싸녀사를 따뜻이 환송하시였다.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의 조선방문은 두 나라사이에 맺어진 형제적이며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변함없이 계승발전시키며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공동의 위업을 위해 투쟁하는 두 당, 두 나라 인민의 전투적 단결을 굳건히 다져나가는데서 력사적분수령으로 되였다.

글 최광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와 리스 꾸에스따 뻬라싸녀사를 따뜻이 환송하시였다. 주체107(2018)년 11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중예술인들의 합동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11월 3일 평양의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조중예술인들의 합동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극장에 도착하시자 중국예술인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삼가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신 습근평동지께서 파견하신 관록있는 중국예술인대표단의 조선방문을 환영하시고 대표단성원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중국예술인대표단의 이번 평양방문이 조중친선을 보다 활력있게 전진시켜나가는데서 의의있는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고 대표단성원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대표단주요성원들과 함께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여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중 두 나라 최고령도자동지들의 깊은 관심속에 마련된 조중예술인들의 합동공연은 조선의 예술인들과 중국의 이름있는 지휘자, 가수, 연주가, 무용배우, 영화배우들이 함께 출연하는것으로 하여 더욱 이채를 띠였다.

출연자들은 공동의 위업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속에서 혈연의 뉴대로 이어진 두 나라 인민들의 열렬한 사상정서적감정을 훌륭한 음악형상으로 보여줌으로써 오랜 력사적전통을 가진 조중예술교류의 친화력과 생명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친선의 정과 우의가 뜨겁게 넘쳐나는 속에 조중친선의 불패성과 공고성을 다시한번 뚜렷이 새겨준 조중예술인들의 합동공연은 합창《조중친선은 영원하리라》로 끝났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무대에 오르시여 중국의 이름난 예술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두 나라 인민의 뜻과 의지가 친선의 찬가로 되여 메아리친 합동공연은 세기와 세대를 이어온 조중문화교류의 발전력사에 또 하나의 감동깊은 화폭을 새기였다.

글 강수정

무대에 오르시여 중국예술인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7(2018)년 11월

삼지연군 읍지구건설정형을 료해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7(2018)년 10월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7(2018)년 10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7(2018)년 10월

조선혁명의 고향군, 백두산아래 첫동네인 삼지연군을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의 리상향으로 전변시키실 웅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올해에만도 두차례나 삼지연군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찬눈이 내리는 10월말에 또다시 이곳을 찾으시였다.

읍지구에 새로 일떠선 살림집들과 봉사시설들, 공공건물들을 돌아보시면서 삼지연군건설실태와 자재, 로력보장 및 물자수송실태, 공사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료해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맞는 2020년 10월까지 삼지연군총건설을 앞당겨 끝내는것으로 다시 계획을 짜고 무조건 완수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삼지연들쭉음료공장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짧은 기간에 건설이 많이 진척되였다고 하시며 년말까지 공장을 완공할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날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삼지연군에서 올해 례년에 없는 불리한 기후조건에서도 감자농사에서 높은 수확을 이룩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였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거리전경을 부감하시고 여러 요소들을 돌아보시면서 공사진행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한손의 다섯손가락도 길고짧듯이 건축구성의 다양한 형태 및 크기변화가 조화롭게 어울리며 예술적호환성이 해결되여야 해양공원도시로서의 자기의 고유한 특성과 멋이 두드러진다고 말씀하시였다.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현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7(2018)년 10월

당의 부름에 무한히 충실한 건설자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해 세상이 또 한번 놀라고 부러워할 인민의 문화휴식터, 인민의 해양공원이 다음해 10월 10일을 맞으며 보란듯이 일떠설것이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는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명사십리전역에 인민의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가 울려퍼질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과감히 돌진해나가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현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온천관광지구건설총계획도앞에서 여러가지 배치방안들을 료해하시면서 건설총계획수정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삼지연군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에 참가한 전체 건설자들은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고 인민에게 세상에서 좋은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다 안겨주기 위하여 끝없는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구상을 드팀없이 받들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글 김은정

공화국의 존엄떨치며 전진해온 자랑찬 2018년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군중들에게 따뜻이 손저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7(2018)년 9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줄기차게 이어진 사회주의조선의 발전행로에 새로운 획기적사변들을 수놓은 주체107(2018)년이 저물고있다.

올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의 존엄과 위용을 힘있게 떨치려는 전체 조선인민의 애국적열의가 더 한층 뜨겁게 분출된 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진행된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와 청년전위들의 홰불야회,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비롯한 경축행사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공화국의 발전사에 새기신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휘황한 미래에로 억세게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공화국창건 70돐을 맞는 올해의 정초부터 비상히 앙양된 전체 조선인민의 불굴의 정신력과 애국적헌신성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비약과 혁신이 이룩되게 하였다.

경제건설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투쟁이 고조되는 속에 사회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을 맞으며 주체적혁명무력으로서의 조선인민군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력사를 보여주는 열병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인민은 공화국창건 70돐을 맞으며 진행된 경축행사들을 통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새로 개건된 평양교원대학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7(2018)년 1월

새로 건설된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7(2018)년 6월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는 온 나라 인민의 혁명열의, 투쟁열의를 더욱 고조시켰다.

전력공업부문에서 자립적동력기지들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과 새로운 동력자원개발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금속공업부문에서 주체적인 제철, 제강기술을 완성하고 철생산능력을 확장하였다.

탄소하나화학공업기지건설을 비롯하여 화학공업의 자립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기계공업부문에서 세계적수준의 기계제품들을 새롭게 개발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부단히 다그쳤다.

삼지연군꾸리기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 단천발전소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과 홍건도간석지 2단계공사, 룡매도간석지공사, 청천강-평남관개물길공사를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였다.

경공업부문의 설비와 생산공정들이 계속 현대화되고 수산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끊임없이 강화되였다.

농업부문에서는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최악의 고온현상이 지속된 불리한 조건에서도 진전을 이룩하였다.

전국의 수많은 단위들에서 자력갱생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우고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였다.

평양의 보통강반에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이 예술의 전당으로 훌륭히 일떠서고 대동강기슭에는 훌륭한 봉사환경을 갖춘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이 멋들어지게 일떠섰다.

문화분야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전국의 모든 교육단위들에서 현대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교육시설과 환경을 일신하고 교수내용과 방법을 혁신하기 위한 사업이 계속 줄기차게 벌어졌으며 의약품생산을 늘이고 의료봉사에서 인민성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 다그

바다련어양어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7(2018)년 7월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7(2018)년 7월

강원도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7(2018)년 7월

새형의 궤도전차를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7(2018)년 8월

우리의 기술과 원료, 연료에 의한 주체철생산체계를 완성하였다.

쳐져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이 높이 발양되였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이 계속 거세차게 타번져 어디서나 랑만과 희열이 넘치는 속에 체육선수들은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수많은 국제경기들에서 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리였다.

평양의 5월1일경기장에서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이 수많은 조선인민과 외국인들의 찬사를 불러일으키며 수십여일에 걸쳐 진행되였다.

올해는 조국통일과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공화국의 장구한 투쟁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였다.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확고한 의지에 의해 4월 27일 오랜 세월 분렬과 고통, 대결과 적대의 상징이였던 판문점에서 제3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 채택발표되였다.

북남관계의 새 출발과 화해단합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평화의 상징으로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였던 판문점에서는 그로부터 29일만에 또다시 제4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였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평양에서 력사적인 제5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개최되고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리정표로 되는 《9월평양공동선언》이 탄생하였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공화국의 투쟁에서도 획기적인 전진이 이

자력자강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를 만들어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적앙양이 일어났다.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실현된 강원도양묘장이 건설되였다.

범안리가 사회주의문화농촌의 본보기로 더욱 훌륭히 전변되였다.

과학자, 교원들은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과학연구사업과 후대교육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이 창작공연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떨쳐나선 전체 인민에게 커다란 신심을 안겨주었다.

대동강기슭에 인민들을 위한 봉사기지인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이 일떠섰다.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이 개관되였다.

체육인들은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제13차 청소년 및 제8차 로장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청소년태권도경기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서 우승하여 조국의 영예를 떨치였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이 일어나는 속에 전국도대항 군중체육대회-2018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문재인대통령내외분과 함께 백두산에 오르시여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주체107(2018)년 9월

룩되였다.

올해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진행하신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세차례의 방문은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계승발전시키고 조중 두 나라와 인민들사이의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새로운 장을 열어놓은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그와 함께 6월에 진행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와 미합중국 대통령 도날드 제이. 트럼프사이의 조미 두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수뇌상봉과 회담은 조선반도와 지역에 도래하고있는 화해와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한 력사적흐름을 보다 추동하고 가장 적대적이였던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획기적으로 전환시켜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거대한 사변이였다.

커다란 긍지에 넘쳐 지나온 한해를 돌이켜보는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는 과학이고 승리이며 그이께서 이끄시기에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의 완성은 확정적이라는것을 더욱더 심장깊이 새기면서 희망의 새해 2019년을 마중가고있다.

글 김선경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이 채택된 이후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높아가고있는 속에 북남통일롱구경기와 북남로동자통일축구대회가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와 상봉하시고 회담하시였다. 주체107(2018)년 6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와 미합중국 도날드 제이. 트럼프대통령은 력사적인 싱가포르수뇌회담 공동성명에 서명하시였다. 주체107(2018)년 6월

주체철생산으로 들끓는 야금기지

굴지의 대야금기지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증산의 동음이 높이 울리고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련관단위들의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500여일간의 긴장한 건설끝에 지난 9월 주체철생산공정확립을 위한 방대한 대상공사를 결속하였다.

공사기간 산소열법용광로와 류동층가스발생로가 훌륭히 일떠서고 산소분리기들이 원상복구되여 비콕스제철법의 새로운 경지가 개척되고 강철증산의 튼튼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하여 콕스에 의한 선철 및 강철생산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은 김철의 로동계급은 국내의 무진장한 원료, 연료에 의거하여 철강재생산을 계속 늘이고있다.

선행공정을 맡은 산소열법용광로직장의 용해공들은 로운영을 보다 과학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탐구도입하여 질좋은 쇠물을 뽑아내고있다.

산소분리기분공장에서는 많은 전기를 절약하면서 산소생산량을 늘일수 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이고있으며 가스발생로직장에서도 설비들의 정상관리를 짜고드는 한편 원료들의 배합률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가스의 질과 실수률을 높여나가고있다.

강철직장과 열간압연직장의 용해공들은 변화된 작업조건에 맞게 능률적인 로조작방법을 찾아내고 앞선 기술들을 적극 받아들여 생산을 부쩍 늘여가고있다.

지금 련합기업소에서는 철강재생산의 주체화실현에서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장들마다에 더 많은 철강재들을 보내주고있다.

사진 리광성 글 박영조

능률적인 로조작방법과 앞선 기술을 받아들여 철강재생산을 늘이고있다.

서해포구의 젓갈가공기지

세면이 바다와 접해있는 조선에서는 일찍부터 우수한 젓갈문화가 창조되여 발전하여오고있다.

은률광산의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이 쌓은 방조제에 의해 륙지와 련결된 조선서해기슭의 능금도에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이 새로 일떠섰다. 이곳에서는 발효식품중의 하나인 젓갈을 공업적방법으로 가공하여 맛좋고 영양가가 높으며 위생안전성이 담보된 수십여가지의 제품들을 대량생산하고있다.

공장은 원료준비로부터 세척, 숙성, 주입, 포장 등 모든 생산공정이 자동화, 흐름선화되여있다.

제품들의 위생안전성은 GMP기준에 부합되는 무균화된 생산공정과 정연한 검역체계에 의하여 철저히 담보되고있다.

공장에는 생산되는 젓갈가공품들과 물고기간장 등을 포장하는 용기생산공정도 갖추어져있다. 그리고 공장과 나란히 젓갈원료를 보장하는 수산사업소도 자리잡고있다.

생태환경이 깨끗한 조선서해어장의 수산물들을 잡아오는 족족 가공하여 만드는것으로 하여 공장의 제품들은 젓갈의 고유한 맛을 더욱 살릴뿐아니라 어종별로 그 맛이 독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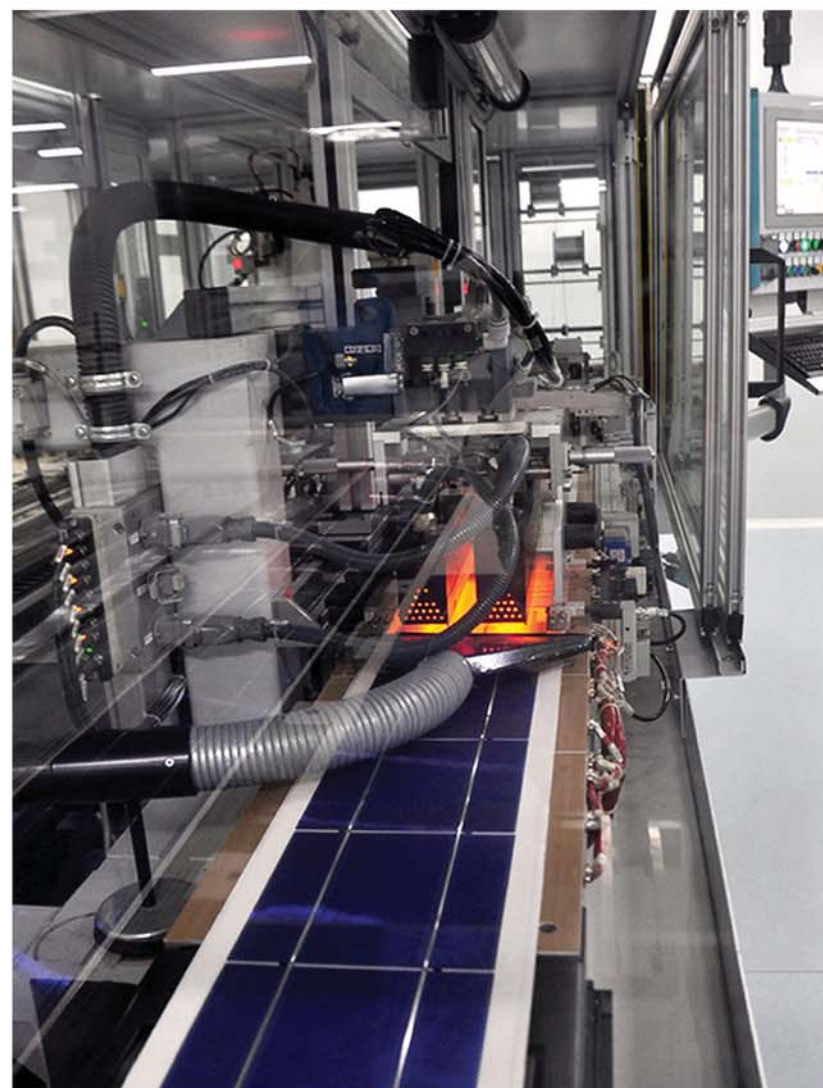
젓갈품생산의 과학화, 현대화수준을 더욱 높이고 제품의 가지수를 계속 늘여 세계적인 젓갈가공품생산기지로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민족의 젓갈문화를 풍부히 해나가겠다고 김상호지배인은 확신에 넘쳐 말한다.

금산포젓갈가공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사진 변찬우 글 오해연

모든 생산공정이 자동화, 흐름선화되였다.

맛좋은 젓갈품들과 물고기간장들이 공업적방법으로 생산된다.

립체률동영화제작과 함께 제품들에 대한 분석실험도 한다.

회사에서는 자연에네르기제품들과 전기 및 전자제품, 유희오락기재들을 생산한다.

기술집약형의 기업구조를 완비하여

평양시 만경대구역 갈림길2동에 록음록화물제작 및 보급기지로 주체81(1992)년에 설립된 목란광명회사가 자리잡고있다.

회사에서 만드는 전자다매체들은 영화와 연극, 가극, 음악을 비롯한 예술작품들과 과학기술자료들, 국내외 체육경기소식들, 각종 상식 등 담고있는 자료의 범위와 내용이 매우 풍부하여 사람들의 문화정서생활에서 친근한 길동무로 되고있다.

오늘날 회사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인재들과 풍부한 지식자원을 기초로 하는 기술집약형의 기업구조를 더욱 완비하면서 다방면적인 경영활동을 진행하고있다.

전자다매체제작소, 자연에네르기제품제작소, 전기전자제품제작소, 설비제작소 등 회사의 여러 단위들에서 사업하는 연구사들의 평균나이는 20대이다. 그리고 엄격한 품질검사체계를 갖추고 항온, 항습, 무진화가 철저히 보장된 생산공정들에서 근무하는 모든 로동자들이 지식형의 근로자들로서 생산활동뿐아니라 새 제품의 개발과 설계, 제작에 적극 참여하고있다.

이들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들의 종류와 가지수는 실로 다양하다.

기계, 전자, 프로그람 등의 관련기술들이 하나로 결합된 각종 유희오락기재들과 립체률동영화, 종합적인 가정용다매체열람기와 가정용적산전력계를 비롯한 전자제품들, 여러가지 태양빛전지판들과 역변환기들 …

건물일체식태양빛발전소를 꾸려놓고 그 덕을 보고있는 회사에서는 국내의 수많은 단위들에서 건설하는 계통병렬형 태양빛발전소들에 대한 기술적방조도 해주고있다.

사람들의 문화정서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할 새 제품개발과 제작에서 언제나 만족을 모르는 목란광명회사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다.

사진 리명국 글 최의림

대중의 사랑과 존경속에서

함경남도 함흥시에 자리잡고있는 동흥산은하피복공장의 지배인 문영선은 일욕심이 많은 녀성일군이다.

한 사무원가정의 여덟남매중 넷째딸로 태여난 그는 어릴적부터 궁냥이 크고 승벽심이 강해서 한번 결심하면 중도에서 포기한 적이 드물었다고 한다.

함흥경공업전문학교(당시)를 졸업하고 34년전 공장의 재봉공으로 입직한 그는 인차 혁신자로 소문나기 시작하였다.

얼마후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에 망라되여 피복분야의 기술을 더욱 련마한 그는 처녀시절에 벌써 기능공학교 교원, 기술준비실 실장을 거쳐 기사장이 되였다.

첫째가는 창의고안명수이고 새 제품개발자였던 문영선은 온 공장의 자랑이고 보배였다.

그 나날에 그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25년전 지배인이 된 문영선은 더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그는 시련과 난관, 실패에 굴하지 않고 생산공정들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을 이악하게 내밀었다.

하여 전국의 피복공장들중에서 제일 먼저 콤퓨터에 의한 통합생산체계를 이룩하여놓았다.

그는 종업원들의 사업과 생활보장문제에도 항상 깊은 관심을 돌려 온 공장안에 언제나 랑만과 희열, 집단적혁신과 경쟁의 분위기가 차넘치도록 하였다.

새 제품개발에 힘을 넣고있는 동흥산은하피복공장 지배인 문영선

오늘 공장은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130% 이상 넘쳐 수행하는 피복부문의 전형단위의 하나로 자랑떨치고있다.

나라에서는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 내세워주고 국가적인 대회장들의 높은 연단에도 세워주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기도 한 그는 시안의 교육부문과 보건부문들, 구역안의 탁아소, 유치원 등과 주민들속에 늘 들어가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정책, 시책들이 옳바로 집행되도록 이끌어주고있다.

지금 공장의 종업원들은 물론 동흥산구역의 주민들은 문영선을 《우리 지배인》, 《우리 대의원》이라 부르며 존경하고있다.

사진 최원철 글 박병훈

문영선은 공장로동자들의 생활과 학교후원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북진땅의 애국자가정

평안북도 운산군산림경영소 산림감독원 강영수의 가정은 대를 이어 숲을 가꾸는 가정이다.

이 가정이 산과 인연을 맺은것은 아버지 강윤경이 운산군 북진로동자구 산림보호원(당시)이 된 주체42(1953)년부터이다.

강윤경은 조선예술영화 《숲은 설레인다》 주인공의 원형으로서 지난 조국해방전쟁(1950년-1953년)시기 벌거숭이가 되였던 북진지구의 산들에 울창한 수림을 조성함으로써 나라의 첫 공훈산림공칭호를 수여받은 공로자이다.

아버지의 성실한 삶은 자식들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하여 맏아들 강영근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숲을 가꾸다가 순직하였으며 오늘은 둘째아들 강영수가 산림감독원으로 12년동안 일해오고 있다.

담당구역에 나무들을 심고 자래우며 산불과 병해충 등에 의한 산림파괴를 막기 위해 하루같이 산발들을 오르내려야 하는 산림감독원의 일은 결코 헐한것이 아니다.

북진체신분소 분소장으로 사업하던 그가 산림감독원을 자진하였을 당시 아버지와 형님의 수고가 어렸던 산림은 여러해째 계속된 자연재해로 하여 적지 않게 손상되여있었다.

그는 산림조성계획을 다시 새롭게 세웠다.

부족되는 나무모와 새 나무종자를 구하기 위해 머나먼 출장길도 가리지 않았고 돌을 추고 거름을 내서 결군 집주변의 빈땅들에는 알곡이나 남새종자보다 나무씨앗을 더 많이 묻었다.

그리고 새벽부터 밤깊도록 새로 조성한 나무밭들의 비배관리에 모든 정열을 쏟았다.

이렇게 바람이 조금만 세차면 애어린 나무모들이 부러지지 않을가, 뙤약볕이 내리쪼이면 가물을 타지 않을가 항상 마음을 놓지 못하면서 키운 나무모들이 산들에 옮겨졌으며 한뽐두뽐 자라기 시작하였다.

대를 이어 북진지구의 숲을 훌륭하게 가꾸어가려는 그의 결심과 이악한 노력은 형제들을 감동케 하였다.

하여 교원이였던 누이며 다른 단위들에서 사무원으로 일하던 동생들 그리고 매부들과 형수, 제수들 모두가 산림조성사업을 적극 도와나섰다.

마침내 북진로동자구의 2 700여정보의 산림은 군은 물론 도안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목재들을 보장하는 주요림지로, 산과실들이 주렁지고 진귀한 약초들이 많으며 산짐승들이 욱실거리는 보배산, 보물산으로 새롭게 전변되였다.

5년전 6월 운산군 북진로동자구의 산림은 유용동물보호구로 설정되였다.

주체104(2015)년 강영수에게 공훈산림공칭호가 수여되였다.

지금도 강영수와 그의 가정은 나라의 산림자원을 늘여가는 자신들의 사업에서 인생의 더없는 보람과 긍지를 느끼면서 매일같이 산판으로 오르고있다.

숲이 나날이 울창해지는것과 더불어 그를 지켜갈 미래의 주인들도 자라고있다.

사진 리철진 글 김선경

함경남도바둑원

바둑을 민족체육종목으로 장려하고있는 조선에서는 각 도들에 꾸려져있는 바둑원들에서 바둑선수후비들을 키워내고있다.

함흥시 성천강구역 금사동에 자리잡고있는 함경남도바둑원도 그중의 하나이다.

바둑애호가들이 매우 많은 함경남도에서는 지난 시기 우수한 바둑선수들이 수많이 배출되였다.

바둑원에서는 이러한 자랑과 긍지를 계속 이어가기 위하여 바둑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불러일으키는것과 함께 바둑에 대한 소질과 취미를 가진 어린이들과 학생들로 소조를 활발히 운영하고있다.

기술부원장 리경혁과 지도교원 김설향 등은 소조원들이 바둑의 기초를 공고히 다진데 토대하여 전문기술들을 하나하나 그리고 완전무결하게 습득하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다.

바둑원에서는 해마다 도적으로 어린이바둑경기, 바둑애호가경기, 청소년급바둑경기를 비롯한 여러 부류의 경기들을 조직하고있다.

함경남도바둑원의 소조원들은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바둑경기)를 비롯한 여러 국내경기들에서 계속 좋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사진 리명국 글 박병훈

각이한 수준에 맞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바둑의 묘리를 배워주고있다.

류다른 정서를 안겨주는 말린꽃

평양시 대성구역에 위치하고있는 평양화초연구소에서 각종 화초들에 대한 연구 및 육종사업을 다그치는 한편 말린꽃제품제작기술을 부단히 터득하면서 그 생산을 늘이고있다.

젊고 실력있는 이곳의 연구사들이 새롭게 내놓은 생화선도보존말린꽃의 제조방법은 국가특허증서를 수여받기도 하였다.

이곳의 말린꽃제작소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길을 끄는것이 제품전시장이다.

꽃바구니와 꽃다발, 장식함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말린꽃들로 만든 제품들은 생화로 만든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듯 싶어 볼수록 신통하다.

엽록소를 제거한 잎에 여러가지 색소를 주입하여 만드는 나리꽃이나 꽃벽걸이와 같은 잎맥말린꽃제품들도 특색이 있다.

하여 전시장에 오는 사람마다 생일이나 결혼기념물로는 이것이 제일인것 같다며 너도나도 말린꽃제품들을 찾는다.

제작소의 일군인 리형식은 말린꽃제품들은 생화를 리용하는것보다 경제적이고 임의의 장소를 계절에 관계없이 짧은 시간에 다양한 형식으로 훌륭하게 장식할수 있는 등 여러모로 좋다고 하면서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사람들의 정서생활을 더 한층 풍만하게 하여주는 갖가지 제품들을 더 많이, 더 잘 만들겠다고 말한다.

류다른 정서를 안겨주는 말린꽃제품들은 사람들속에서 그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있다.

사진 최원철 글 강수정

특색있는 말린꽃을 제작하고있다.

물새들이 날아예는 대동강

사진 리광성

낸곳 : © 조선화보사 2018 주소 :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인쇄소 : 외국문출판사 인쇄공장
ISSN 1727 - 9224

편집 서철남 13606-1881161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 : //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 : flph@star－co.net.kp

뒤표지: 눈속에 핀 백두산의 만병초
사진 변찬우